



전 재 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국민의 힘을 모아 경제위기 극복하자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우리나라 경제도 침체에 접어들고 있다. IMF 등 국내외 기관은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위기시에는 일자리와 소득이 감소되어 중산층은 서민층으로, 서민층은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고통이 수반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마이너스 성장시, 새로운 빈곤층이 200여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WorldBank에 따르면 경제위기하에서 신속하고 충분한 조치가 미흡할 경우에는 미래 재정부담이 현재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한다. 경제위기하에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일시에 발생하는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위기상황에서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서민중산층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다. 또한 기존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미래 성장잠재력도 동시에 확충해 나갈 것이다.

우선, 경제위기로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지체 없이 긴급복지, 고용·교육·주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민생안정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129희망콜센터와 시군구·읍면동에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보호하고 있다. 긴급지원의 대상을 확대하였고, 저소득자에게 사업자금을 대출해 주는 마이크로크레딧(무보증 신용대출)사업도 대폭 확충하였다. 올 1월부터 실시한 민생안정지원은 현재(2.20)까지 18만여건이 신청되었으며 이 중 10만여건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기존의 사회안전망도 더욱 촘촘히 강화할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가 인상되고, 재산기준이 완화되어 기초생활대상이 확대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도 연차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아동청소년과 장애인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확대하고, 취약아동청소년에게는 복지·보건·교육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과 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사업도 강화된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활동보조서비스가 확대 제공되고, 장애아동에게는 재활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다문화가족, 한부모 가족 등 위기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실직 또는 퇴직자와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이다.

일 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그 자체가 복지다. 사회서비스 등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보건의료산업도 육성해 나갈 것이다. 장애인·노인·산모·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이 OECD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사회적 일자리의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세계적으로 보건의료시장은 소득수준의 향상, 고령인구 등의 증가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보건의료산업은 양질의 일자리 제공, 고부가

가치 창출, 환경영향의 최소화 등의 측면에서 미래성장의 핵심분야로 향후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제약산업, 화장품산업, 의료기기산업 등을 육성하여 일자리와 소득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금번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에서도 사랑과 나눔의 정신으로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정부의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원의 양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계 계층이 발생할 수 있다. 민간부문에서 이러한 대상을 찾아 추가적 지원을 해주면 민생 안정은 더욱 두터워질 것이다.

우리 국민은 지난 외환위기때 온 국민이 단합하여 세계에서도 가장 빠르게 경제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 IMF는 우리나라를 모범적인 경제위기극복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이번에 노사민정이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일자리 나누기·유지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금번 경제위기도 모든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문경지**